

대순사상의 유교적 이해

황 의 동

충남대학교 · 교수

- I. 시작하는 말
- II. 대순사상의 유교적 배경

- III. 대순사상의 유교적 이해
- IV. 현대사회와 대순사상의 의의

I. 시작하는 말

종교와 철학은 역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오늘날 동양철학이 불교, 유교, 도가(도교)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서양철학도 일부 기독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철학이 인간을 중심으로 존재를 문제 삼고, 그 존재의 인식을 따져 물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묻는 작업이라면, 종교는 세속을 초월해서 성스런 가치(聖)를 추구하며, 절대자를 경배하고 믿으며, 내세에 대한 복음을 추구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첨단과학의 시대요, 물질 내지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다. 현대인은 과학을 맹신하고 과학기술의 위력 앞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여지없이 무시되고 있다. 또한 물질만능의 세태 앞에 인간성의 위기와 인간 존엄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인의 영혼

은 메말라 가고 피곤에 지쳐있다. 현실적 이해(利害)에 목숨을 걸고 당장의 성패에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현대인이 당면한 황량한 정신적 환경에서 종교는 하나의 청량제처럼 고마운 존재다.

대순(大巡)사상은 천도교(天道敎), 원불교(圓佛敎), 증산도(甌山道) 등과 함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한말에 태동한 민족종교의 하나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자료에 의하면, 증산(甌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이 “이조말엽 극도로 악화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도탄기를 당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어, 창생(蒼生)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대(前代) 미증유(未曾有)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며,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였다”¹⁾고 한다. 강증산은 자신이 새로운 종교의 깃발을 들게 된 배경을 김형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며,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神明)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지하신(地下神)은 천상의 모든 묘법(妙法)을 본받아 인세(人世)에 그것을 베풀었다 하였다. 그는 또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하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天理)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道)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神性)과 불(佛)과 보살(菩薩)이 회집(會集)하여 인류와 신명계(神明界)의

1)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교무부, 2003, 10쪽.

이 겁역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하므로, 자신이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나, 그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大道)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降世)하였다”²⁾고 하였다. 여기에서 강증산은 기독교, 불교, 유교, 최수운(崔水雲)을 넘어서는 자신의 종교적 위상을 천명하고,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度數)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겠다는³⁾ 종교적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어 도주(道主)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가 종통(宗統)을 계승하여, 9년의 공부 끝에 1917년(丁巳)에 상제(上帝) 강증산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感悟)했다고 한다.⁴⁾ 또한 도전(都典) 박한경(朴漢慶)은 1958년(戊戌) 3월 6일 도주 정산 조철제의 유명(遺命)으로 종통을 계승하였고, 1969년(己酉) 4월에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고 종단(宗團)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정식으로 창설하였다 한다.⁵⁾

본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대순사상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典經)』에 이미 유교적 단서가 많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대순사상의 형성에 있어 유교적 배경이 깊게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순사상과 유교의 보편성을 찾아보는 동시에 또 차이성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순사상의 유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대순사상을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나누어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155~156쪽.

3) 『典經』, 271쪽.

4) 『典經』, 191쪽.

5) 『대순진리회요람』, 13쪽.

II. 대순사상의 유교적 배경

대순사상은 그 형성과정에서 유(儒)·불(佛)·도(道) 3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여러 정황으로 입증되는데, 예를 들면 강증산이 정유년(丁酉年)에 정남기(鄭南基)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永學)과 형렬(亨烈)의 아들 찬문(贊文)과 그 이웃 서동(書童)들을 가르칠 때 유·불·선 음양참위(陰陽參緯)를 통독(通讀)하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匡救)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얼마동안 글방을 계속하다 인심과 속정(俗情)을 살피고자 주유(周遊)의 길을 떠났다가,⁶⁾ 신경원이 강증산을 배알하기에 증산이 그에게 “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하고, 양지 한 장을 주어 유, 불, 선 세 글자를 쓰게 하고, 강증산이 유자(儒字) 밑에 중니(尼丘), 불자(佛字) 곁에 서역(西域), 선자(仙字) 곁에 고현(古縣)이라 쓰고 그 양지를 불살랐다⁷⁾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경』에 의하면 강증산은 “세상에는 충(忠)이 없고 효(孝)가 없고 열(烈)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가 모두 병들어 있느니라”⁸⁾고 하여, 당시 천하의 병통이 충이 없고 효가 없고 열도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여기에서 ‘충효열(忠孝烈)’은 유학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왔던 윤리 덕목으로, 충(忠)은 국가윤리요 효(孝)는 가정윤리요 열(烈)은 개인, 가정, 국가를 아우르는 윤리로 중시되었다. 또한 대순사상은 그 형성과정에서 유교의 경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⁹⁾

6) 『典經』, 17쪽.

7) 『典經』, 88쪽.

8)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1984, 30쪽.

9) 『典經』, 215쪽. (道主께서 甲午年 가을에 朴漢慶에게 『史略』 上下卷과 四書三經의 舊版을 구하게 하시므로, 이 때에 『通鑑』, 『小學』, 『大學』, 『論語』, 『孟子』, 『詩傳』, 『書傳』, 『中庸』, 『周易』의 구판을 구하여 올렸더니, 이 책들은 그 후에 道場에 비치되었도다.)

이와 같이 사서삼경(四書三經)은 물론 『통감(通鑑)』, 『소학(小學)』 등 유학에서의 필수적인 경전들을 도장(道場)에 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강증산은 『대학(大學)』을 중시하였고,¹⁰⁾ 또 『대학』의 다른 장을 외워주며 잘 기억하라고 당부하였다.¹¹⁾

여기에서 강증산은 『대학』 제1장을 종도(宗徒)들에게 많이 암기하도록 가르쳤는데, 경1장(經1章)은 『대학』의 이른바 ‘3강령(綱領) 8조목(條目)’의 대체(大體)를 밝힌 것으로, 대개 공자의 뜻을 증자(曾子)가 서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하나 종도들에게 강조한 『대학』의 글은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태서편(秦誓篇)」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대학』 전10장(傳10章)에 있는 글이다. 이는 진목공(秦穆公)이 백리해(百里奚)와 견숙(蹇叔)의 간언(諫言)을 듣지 않고 정(鄭)나라를 쳤다가 실패하고 후회하여 쓴 글이다.

또한 강증산은 아우 영학에게 부채 한 개에 학을 그려주고, “집에 가서 부치되, 칠성경(七星經)의 무곡(武曲) 파군(破軍)까지 읽고 또 대학을 읽으라. 그러면 도에 통하리라”¹²⁾고 하였고, 또 종도들에게 『대

10) 姜龜山이 실제로 독서를 강조한 것은 『大學』 經 제1장이라고 생각된다. 『典經』에 인용한 원문 내용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에 상제께서 宗徒들의 지혜를 길게 하는 일에 골몰하시더니, 어느 날 宗徒들에게 “『大學』 右 經1章을 많이 외우라. 거기에 大運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어느 날 상제께서 형렬에게 『大學』에 있는 右 經1章을 외워주시니, 그 글은 다음과 같다. “蓋孔子之言而曾子述之 其餘十章 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也 舊傳 頗有錯簡 今因程子所定而更考經文 別有序次如左(대개 孔子의 말씀을 曾子가 기록하였고, 그 나머지 10장은 曾子의 뜻을 문인이 기록한 것이다. 옛 책에 잘못 이어진 책장이 있으므로 이제 程子가 정한 것에 인하여, 다시 經의 글을 상고하여 따로 차례하기를 원편과 같이 한다)”)

11) 『典經』, 179~180쪽. 『典經』에 있는 『大學』의 내용과 『大學』의 원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大學』 원문을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如(若)有一介(斷斷)無他技其心休焉 其如有容(焉)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彥聖 其心好之 不啻若目(自)其口出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尚亦有利哉 人之有技 嫉疾以惡之 人之彥聖 而違之 俾不通 是(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만일 한 신하가 꾸준하면서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남을 용납함이 있는 듯한지라, 남이 재주를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것과 같이 하며, 남이 아름다운 선비로 통하여 유명하면 자기 마음에 좋게 여겨,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이런 사람은 남을 용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자손과 모든 백성을 보전할 것이니, 이런 사람은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남이 재주 가진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남이 아름다운 선비로 통하여 유명한 것을 어기어 통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지라, 우리 자손과 모든 백성을 보전하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위태할 것이다.)”

12) 『典經』, 267쪽.

학』의 ‘물유본말(物有本末) 사유종시(事有終始) 지소선후(知所先後) 즉 근도의(卽近道矣)’와, ‘기소후자박(其所厚者薄) 기소박자후(其所薄者厚) 미지유야(未之有也)’라는 말을 거울로 삼고 일하라¹³⁾고 훈계하였다. 강증산은 도통(道通)의 한 과정으로 『대학』을 권독(勸讀)하였고, “물(物)에는 본말(本末)이 있고 일에는 종시(終始)가 있으니, 선후(先後)를 알면 곧 도(道)에 가깝다”는 말과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을 다스리는 자는 없으며, 그 두텁게 해야 할 바에 얇게 하고 그 얇게 해야 할 바에 두텁게 하는 자는 있지 않다”는 경 1장의 말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후하게 해야 할 바란 가정을 가리키고, 얇게 해야 할 바란 국가와 천하를 말한다. 이는 국가나 천하는 가정의 확대라 보고, 가정에 비해 국가나 천하는 먼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강증산은 갑진년(甲辰年) 2월 굴치(屈時)에 있을 때, 영학에게 『대학』을 읽으라 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¹⁴⁾ 처음부터 영학은 도술(道術)을 배우기를 원했으나 상제(강증산)는 그것을 원치 않고 『대학』을 읽으라 했는데도 명을 어기고 술서(術書)를 공부하므로, 시를 보내어 깨닫게 했으나 상제의 말을 듣지 않더니 기어코 죽게 되었다¹⁵⁾고 기록하고 있다. 강증산이 아우 영학에게 얼마나 『대학』의 독서를 권장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강증산이 유학의 사서삼경 가운데 특별히 『대학』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숙고를 요한다. 다만 『대학』이 유교 경전 가운데 유학의 규모와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밖에도 강증산은 『서경』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¹⁶⁾ 『서경』의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의 상

13) 『典經』, 243쪽.

14) 『典經』, 273쪽.

15) 『典經』, 274쪽.

16) 『典經』, 167쪽. (상제께서 堯의 ‘曆象 日月星辰 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日月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日月은 知人이 아니면 虛影이요, 唐堯가 日月의 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하셨도다.)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書傳』 序文을 많이

장(上章)을 반복해 읽으면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여, 『서경』과 『대학』의 독서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의 ‘역상일원성신(曆象日月星辰) 경수인시(敬授人時)’에 대해 “천지가 해와 달이 아니면 빈 껌데기요, 해와 달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헛 그림자요, 요임금이 해와 달의 법칙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 졌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강증산은 『맹자』의 한 구절을 중도들에게 일러주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하였는데, 그 문장은 『맹자』 「고자하(告子下)」의 “天將降大任於斯(是)人也 必先勞(苦)其心志 苦(勞)其筋骨 餓其體膚 窮(空)乏其驢(身) 行拂亂其所爲 是故(所以)動心忍性 增(曾)益其所不能(하늘이 장차 큰 책임을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함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며,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몸과 살을 주리게 하며, 몸을 궁핍하게 하여, 행하려 하는 것을 거슬리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마음을 움직이고 본성을 참아서 그 능치 못한 것을 더하는 것이다)”¹⁷⁾이다.

그 밖에도 『정역(正易)』을 저술한 한말의 유학자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¹⁸⁾ 김항의 꿈에 의해 강증산은 옥경(玉京)에 올라 천존(天尊)의 부름을 받고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뜻을 상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김항이 강증산에게 ‘요운(曜雲)’이란 호를 주고 공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증산은 김형렬의 집

읽으면 道에 통하고, 『大學』 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豁然貫通한다”하였느니라.)

17) 『典經』, 50쪽.(『典經』에 인용된 글은 괄호속의 글자에서 보듯이, 『孟子』의 원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18) 『典經』, 17쪽.(금구 내주동을 떠나신 상제께서는 익산군 이리를 거쳐 다음 날 金一夫를 만나셨도다. 그는 당시 詠歌舞蹈의 教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 날 一夫가 꿈을 꾸었도다. 한 使者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一夫에게 姜土玉과 함께 玉京에 오르라는 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土玉과 함께 玉京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天尊을 배알하게 하는 도다. 天尊이 상제께 匡救天下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 도다. 一夫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들연히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도다. 一夫는 상제께 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

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冥府公事)를 행하였는데, 강증산이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진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하였다 한다.¹⁹⁾ 이를 통해 김일부는 강증산에 의해 청국명부를 주관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

또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증산은 “최익현의 거사로써 천지신명이 크게 움직인 것은 오로지 그 혈성(血誠)의 감동에 인함이나 그의 재질이 대사를 감당치 못할 것이고, 한재(旱災)까지 겹쳤으니 무고한 생민의 생명만을 잃을 것이니라. 때는 실로 흥망의 기로라 의병을 거두고 민족의 활로를 열었느니라”고 평가 하였다.²⁰⁾

또한 어느 날 강증산은 전라도 고부 와룡리에 이르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하고, “황극신은 청국 광서제(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고 하면서,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고 하였다.²¹⁾ 여기에서 강증산이 황극신과 관련하여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강증산은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의 종장으로, 주회암(朱晦庵)을 유교의 종장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²²⁾ 하여, 주자를 유교의 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운합주(運合呪)」에서도 ‘원형이정(元亨利貞) 천지지도(天地之道) 인의예지(仁義禮智) 인신지도(人神之道)’²³⁾라 하여, 『주역(周易)』의 원

19) 『典經』, 99쪽.

20) 『典經』, 107쪽.

21) 『典經』, 140쪽.

22) 『典經』, 181~182쪽.

형이정(元亨利貞) 인의예지(仁義禮智), 『맹자』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인용해 천지지도(天地之道)와 인신지도(人神之道)로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순에서 사용하는 명덕(明德), 지선(至善), 평천하(平天下), 인(仁), 성경신(誠敬信), 무자기(無自欺) 등도 유교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강증산이 창도한 대순사상의 저변에는 유교적 자취가 뚜렷하고, 그 형성과정에서의 유교적 영향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불교나 도가가 궁극적으로 출세간(出世間)을 지향하는데 대해, 유교는 현실의 문제, 세속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교와의 접목 내지 대화의 필요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순사상이 아무리 초탈(超脫)의 세계, 내세를 지향한다 해도 현실의 지평, 인간과 세속을 결코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대순사상의 유교적 이해

1. 음양합덕(陰陽合德)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대순사상의 출발점이다. 이는 대순에서 선천의 천지가 음양상극(陰陽相克)의 원리로 빚어져 대립, 갈등의 시대가 초래되었는데, 음양합덕을 통해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도 이해가 가능하다.²⁴⁾

23) 『典經』, 207쪽.

24)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합덕」, 『대순사상논총』, 제2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535쪽.

『대순지침』에 의하면 “도(道)가 음양(陰陽)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經緯)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²⁵⁾고 한다. 여기에서 도(道), 음양(陰陽), 리(理), 경위(經緯), 법(法)은 하나로 상통된다. 대순에서의 음양은 곧 도가 되고 리가 되고 경위가 되고 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은 우주만물의 근원이며, 만사만물의 생성원리이며, 인간 삶의 법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교에서의 음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음(陰)과 양(陽)을 서로 반대되는 두 측면으로 이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태극(太極)과 함께 일체 존재의 생성변화를 일삼는 기(氣)로 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햇별을 양으로 보고 그늘을 음으로 보듯이, 이 세계 모든 존재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공존하는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음양으로 표상해 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태극(太極)은 리(理)로, 음양(陰陽)은 기(氣)로써²⁶⁾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존재적 실체로 보는 경우인데, 주로 성리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순에서의 음양이해는 성리학에서의 음양이해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대순에서의 음양합덕이란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대순경전에 의하면, 인간은 양(陽)이 되고 신(神)은 음(陰)이 되니, 음양이 상합(相合)한 연후에 변화지도(變化之道)가 있게 된다고 한다.²⁷⁾ 신과 인간관계를 음양의 관계로 보고, 음양의 조화, 신과 인간의 합덕에서 온갖 변화가 가능하다 하였다.

또한 『전경』의 「음양경(陰陽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양의 합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²⁸⁾ 천(天: 乾)은 양(陽), 지(地: 坤)는 음(陰), 해

25) 『대순지침』, 18쪽.

26) 『栗谷全書』, 卷20, 「聖學輯要2」, “理者 太極也 氣者 陰陽也.”

27) 『典經』, 309쪽.

28) 『典經』, 207쪽. (乾定坤順 乾陽坤陰 日行月行 日陽月陰 有神有人 神陰人陽 有雄有雌 雌陰雄陽 有內有外 內陰外陽 有右有左 左陰右陽 有隱有顯 隱陰顯陽 有前有後 前陽後陰 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

(日)는 양, 달(月)은 음, 신은 음, 인간은 양, 암컷은 음, 수컷은 양, 안은 음, 밖은 양, 오른 편은 양, 왼편은 음, 숨은 것은 음, 드러난 것은 양, 앞은 양, 뒤는 음이라 하고, 이와 같이 천지 만사가 모두 음양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이 음양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神人)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순에서 음양은 만사가 이루어지는 근본이며,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근본이다.

마찬가지로 『전경』의 「음양경」에서 천(天)은 지화(地化)가 없으면 그 아래에 펼 수가 없고, 지(地)는 천공(天功)이 없으면 그 위에서 이룰 수가 없다 하고, 천지가 화(和)해서 만물이 창성(暢盛)하고 천지가 편안해서 만상이 구비된다 하였다.²⁹⁾ 천지의 조화는 곧 음양의 조화요 합덕이다. 하늘과 땅의 상보적 협력과 조화가 만물 창성의 길이요 만상이 갖추어지는 길이다. 음양이 합덕하면 천지가 무한한 덕을 내려주게 되는데, 이 때의 덕은 선덕(善德)이다. 그리고 음양은 각각 정음(正陰), 정양(正陽)이어야 하며, 일음일양(一陰一陽)이어야 한다.³⁰⁾

강증산은 “선천에서는 삼상(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하고,³¹⁾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³²⁾고 하였다. 선천에서는 음양이 고르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이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한 것인데, 지덕(地德)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라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³³⁾고 하였다. 후천에서는 천지가 합덕하고, 남녀가 서

29) 『典經』, 207쪽.

30)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전대학교 대진학술원, 2007. 25쪽.

31) 『典經』, 123쪽.

32) 『典經』, 232쪽.

로 존중되며, 하늘의 공덕과 땅의 공덕이 함께 존중되는 즉 음양합덕이 되어야 한다 하였다. 강증산이 한말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존여비의 관습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지덕의 중요성, 여성의 중요성,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것은 선천의 시대가 지나치게 양 중심으로 치우친데 대한 반성이요 경고의 의미가 있었다. 후천의 시대는 천덕과 지덕이 합덕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화목하고 존중하며, 정신과 물질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음양합덕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순의 음양합덕은 동양의 오랜 전통사상에 연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음양사상은 본래 동양사상의 기층을 이룬다. 유교뿐만이 아니라 도가 내지 도교의 경우도 음양 내지 기철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교는 『주역』을 통해 태극과 함께 음양이 일컬어졌는데,³⁴⁾ 성리학에서는 이 태극과 음양을 일체 존재가 성립하는 실체 개념으로 인식하였다.³⁵⁾ 태극은 형이상자로서의 도(道)를 말하고, 음양은 형이하자로서의 기(器)를 말한다. 그리고 태극은 리(理)로, 음양은 기(氣)로 인식되어, 이 세계 만사만물을 태극음양, 이기로 설명하는 성리학의 존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³⁶⁾

또한 음양은 기로써 음기(陰氣), 양기(陽氣)로 분류되며, 음양이 분화된 기가 바로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행(五行)이며, 이 오행이 다양하게 엉기어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다.³⁷⁾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햇별을 양(陽), 그늘을 음(陰)이라고 한데서 연유하여,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하나는 음(陰)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양(陽)이라고 불렀

33) 『典經』, 233쪽.

34) 『周易』, 「繫辭上」,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35) 朱子도 陰陽을 서로 반대되는 성질로 본 경우도 있다. (『性理大全』, 卷27, 「陰陽」, “陰陽有相對言者 如夫婦男女東西南北是也.”)

36) 『二程全書』, 卷15, 「伊川語錄」, “所以陰陽者是道也 陰陽氣也 氣是形而下者 道是形而上者.”

37) 周濂溪의 「太極圖說」 참조.

다.³⁸⁾ 즉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이요, 해가 양이라면 달은 음이고, 남성, 수컷이 양이라면 여성, 암컷은 음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의 음양은 사물에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표상한 말로, 유교에서는 음 홀로서나 양 홀로서는 생성이 불가하다고 본다. 천지만물은 모두가 음양(陰陽) 이기(二氣)의 교감(交感)으로 화성(化成)하고, 화생(化生)된 만물은 또 그 나뉠 음양(陰陽) 이질(二質)의 어느 한쪽에 속하여 그것만으로 생성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의 대상과 만나야 한다. 즉 음은 양을 구하고 양은 음을 구해야 생성할 수 있다.³⁹⁾ 반드시 음과 양이 서로 만나 화합하는데서 만사만물의 생성변화가 가능하다. 이 때 음과 양은 상보적(相補的) 관계하에 있다. 음이나 양은 그 홀로서는 부족하다. 음은 양을 만날 때 비로소 그 부족함이 보구(補救)되어지고, 양은 음을 만날 때 비로소 그 부족함이 보구되어진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대립갈등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타방(他方)의 보구를 통해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된다. 음과 양은 서로 다른 둘이지만 하나로 만나야 한다. 하나의 존재 양태로 있지만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다. 즉 음과 양은 서로 다른 둘이지만 하나로 있고, 하나로 있지만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어서 둘이다.(一而二 二而一)⁴⁰⁾ 이러한 유교의 음양묘합(陰陽妙合)의 원리와 대순의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종지(宗旨)는 결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는 이 음양을 태극과 함께 형이상, 형이하의 존재적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38) 이렇게 陰陽을 相補的 對待관계로 보는 것은 『周易』의 보편적 사유인데, 특히 茶山 丁若鏞의 경우 성리학적해석을 거부하고 그늘을 陰, 햇볕을 陽이라고 보았다.(『與猶堂全書』, 「中庸講義」, “陰陽之名 起於日光之照掩 日所隱曰陰 日所映曰陽 本無體質 只有明闇.”)

39) 김충렬, 『유가의 윤리』, 배영사, 1983, 27쪽.

40) 大巡의 陰陽合德의 상보적 정신은 한국 전통사상의 특징을 이룬다. 栗谷은 理氣之妙를 통해 理氣의 상보성을 말하고 있고, (황의동, 『율곡 이이』, 살림, 2007, 70~73쪽) 元曉는 和諍論에서 상보성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단군신화에서도 陰陽妙合의 사유를 볼 수 있다.

2. 신인조화(神人調化)

신인조화(神人調化)는 대순사상의 종지(宗旨)의 하나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돕는 유기적(有機的) 관계를 말한다. 즉 신이 사람이고 사람이 신이므로, 신과 사람의 구분이 없는 완전한 진인(眞人)이 후천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어울려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인간개조요 정신개혁이 곧 신인조화사상이다.⁴¹⁾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신을 내포하고, 신이라는 존재 속에 인간이 내포되어지는 전체적인 통일을 의미한다.⁴²⁾

『전경』의 「음양경」에 의하면 “신은 사람이 없으면 뒤에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이 없으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것이 없다. 신인(神人)이 화(和)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이 함해야 백공(百工)이 이루어진다. 신명(神明)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신명을 기다린다. 음양이 상합(相合)하고 신인이 상통(相通)한 후해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지며, 신사(神事)가 이루어져 인사(人事)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져 신사(神事)가 이루어진다.”⁴³⁾ 하였다. 신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상보적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신인이 서로 조화해야 만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신인이 서로 함해 하나가 되어야 온갖 일들이 이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음양이 상합하고 신인이 상통한 후해야 천도가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지며, 신사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하였다. 이와 같이 대순사상은 천리와 인사의 합일성을 밝혀 만상만유(萬象萬有)가 도(道) 안에서 생성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케 해야 한다⁴⁴⁾고 보았다.

41)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27쪽.

42)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 『대순사상논총』, 제2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506쪽.

43) 『典經』, 207쪽, “神無人 後無托而所依 人無神 前無導而所依 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疾人 人疾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그런데 대순에서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인간계의 활동보다 신계(神界)의 활동이 먼저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이는 대순사상이 신과 인간을 함께 말하지만, 일단 신인(神人)의 선후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순에서 인간보다 신을 먼저 말하는 것은 유학에서 인간을 천지(신)의 소생자(所生者)라고 볼 때는 인간이 천지(신)의 자식이지만, 태어난 이후 인간 중심의 공능(功能)을 말할 때에는 인간이 부모인 천지(신)와 동열선상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⁴⁶⁾

그런데 대순에서의 인간은 구천대원조화주(九天大元造化主)인 구천상제(九天上帝) 주재하의 인간이다.⁴⁷⁾ 이런 관점에서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인간에게 있고 성사(成事)는 천(天)에 있다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천에 있고 성사는 인간에 있다”⁴⁸⁾고 하였다. 선천의 세계에서 모사(謀事)는 인간의 할 일이었다면, 성사(成事)는 천(天)의 소위(所爲)라고 보았지만, 후천에서는 반대로 모사는 천의 소임이라면 성사는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보았다. 선후천을 막론하고 모사와 성사가 신인(神人)의 공능(功能)에 달려 있지만, 후천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대순사상에는 인존(人尊)의 정신이 깔려있다. 강증산은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⁴⁹⁾고 선언하였다. 이는 후천의 시대를 인존의 시대로 규정한 것인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존은 천존과 지존에 대비되는 말로, 그 궁극적 가치는 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천존이란 신의 존재가 하늘이라는 경계에 머물며 그

44) 『대순지침』, 45쪽.

45)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15쪽.

46) 김충렬, 『동양사상산고』, 범학, 1979, 162쪽.

47) 『대순지침』, 50쪽.

48) 『典經』, 257쪽.

49) 『典經』, 244쪽.

역사(役事)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존이란 신의 존재가 땅이라는 경계에 머물며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인존은 신의 존재가 사람에게 붙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써 인간의 가치가 최고도로 실현되는 상태가 된다.⁵⁰⁾

그는 또 “옛적부터 위로 천문에 통하고 아래로 지리에 달함은 있었으나, 중간에 인의(人義)를 살핌은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⁵¹⁾”고 하여, 과거에는 천문지리의 통달에 치우쳤지만, 이제는 인간존재의 해명, 인간 삶의 의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됨을 예고하였다. 이처럼 대순사상이 하늘과 땅의 문제 즉 종교적, 정신적 천의 문제, 자연적, 물질적 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문제를 주목하고 강조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을 말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천, 지를 말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지, 즉 다시 말하면 신을 말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신, 물질을 말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물질을 강조한 데 그 본의가 있다. 오늘날 현대인이 첨단과학기술과 풍요로운 물질문명에 매몰되어, 인간성의 상실, 인간소외에 직면해 있다고 볼 때, 대순의 인존시대 선언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에 매몰되어 인간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인간의 존엄을 망각하는 ‘신에 의한 인간소외’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인존사상은 바로 평화사상으로, 가정화목, 사회화합, 인류화평을 이룩하는 대순진리이다.⁵²⁾

모든 종교는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신학의 인간화’를 고민해야 한다. 또 일체의 과학문명은 인간화함으로써 그 진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신인이 인(人)에 내재하고 물질이 인간에게 승화하여, 천지의 요소가 일신에 화육(化育)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이라야 할 것이다.⁵³⁾

50)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27쪽.

51) 『典經』, 256쪽.

52) 『대순지침』, 20쪽.

이러한 대순의 신인조화와 인존사상은 유교의 종지와도 상통한다. 유학은 본래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전제할 뿐 아니라 이상으로 삼고 있다.⁵⁴⁾ 군자는 천행(天行)의 건(健)을 본받아 자강불식(自彊不息)하며,⁵⁵⁾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고, 사시(四時)와 더불어 그 차례가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길흉(吉凶)을 합한다.⁵⁶⁾ 이와 같이 군자는 하늘 즉 천도의 굳셈(健)을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기를 멈추지 않으며, 대인의 덕은 천지, 일월, 사시, 귀신과 하나로 합일한다고 보았다. 또 율곡은 천지의 변화는 오심(吾心)의 발용과 같다 하였고,⁵⁷⁾ 천지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라고 하였다.⁵⁸⁾ 또 성인의 덕은 천과 하나가 되어 신묘해 헤아릴 수 없다 하고,⁵⁹⁾ 천과 인간이 하나의 이치니, 감응에 어긋남이 없다⁶⁰⁾고 하였다. 이처럼 유교는 인간의 본래성을 말할 때도 천에 근거해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또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덕적 당위를 말할 때에도 천도 내지 천리에 합당한 인간의 행위를 이상으로 삼는다. 즉 존재와 당위 모두 천인합일을 전제하는 것인데, 천인합일은 곧 대순의 신인조화와 상통하는 의미다.

또한 대순이 인존시대의 도래를 주장하고, 인존사상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교도 인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유교도 인간이 천(천지)의 소산자요 천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천지만물을 경영한다고 생각한다. 즉

53) 유승국, 「동아시아 기조로서의 도와 현대사회」, 『대순진리학술논총』, 제3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8, 23쪽.

54) 유학은 인간의 본성이 천에 근거한다고 본다.(『中庸』, “天命之謂性”) 人性이 곧 天性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天性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바른 길이다. 天理, 天性, 天道에 합일하는 인간의 삶이 人道요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55) 『周易』, 「乾卦 象傳」, “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

56) 『周易』, 「乾卦 九四爻」,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57) 『栗谷全書』, 卷10, 書2, 「答成浩原」, “天地之化 吾心之發也...”

58) 『栗谷全書』, 拾遺, 卷5, 「神仙策」, “天地萬物 本吾一體.”

59) 『栗谷全書』, 卷22, 「聖學輯要4」, “聖人之德 與天爲一 神妙不測.”

60) 『栗谷全書』, 拾遺, 卷6, 「天道人事策」, “天人一理 感應不差.”

유교는 인간을 천지와 병렬해 그 지위를 특수화시켜 본다.⁶¹⁾ 그리고 유교는 인간을 천의 대행자로 보고,⁶²⁾ 하늘처럼 인간을 존중한다. 또한 유교는 인간의 주체성을 중시하여 대동(大同)세계에 이르는 것도, 인(仁)을 실현하는 것도,⁶³⁾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것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성 속에 이미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순의 중지인 신인조화와 유교의 천인합일, 대순의 인존사상과 유교의 인본사상은 상통할 여지가 많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

대순사상의 또 하나의 중지는 해원상생(解冤相生) 또는 보은상생(報恩相生)이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이라고 할 때 ‘원(冤)’의 의미는 모든 사물이나 인간 누구나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생기는 감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상대로 인해 발생한 원망(怨望)의 감정으로서의 ‘원(怨)’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루지 못한 소원도 포함된다.⁶⁴⁾

해원(解冤)은 척(感)을 푸는 일이다.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면 상대도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 편이 척이 풀려 해원(解冤)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⁶⁵⁾ 이는 달리 말하면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것으로서, 화합, 단결,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리⁶⁶⁾

61) 『荀子』, 「天論篇」, “天有其時 地有其財 人有其治 夫是之謂能參.”
『書經』, 「泰誓上」, “惟天地 萬物之母 惟人 萬物之靈.”

62) 『書經』, 「皋陶謨」, “天工人其代之.”

63) 『論語』, 「述而篇」,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64)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30쪽.

65) 『대순지침』, 27쪽.

66) 『대순지침』, 27쪽.

는 좋지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순이 해원상생, 보은상생을 중지로 삼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강증산은 김형렬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즉 先天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相克)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神明)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고자 한다 하였다.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冤)을 풀어야 하니,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라고 하였다.⁶⁷⁾

여기에서 보듯이 강증산은 선천의 세계를 상극의 질서로 인해 원한이 삼계를 가득 채운 것으로 진단하였다. 천지가 상도를 잃어 온갖 재화가 일어나고 참혹한 세상이 되었다. 음양의 상극으로 천지공사(天地公事)는 먼저 음양의 해원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⁶⁸⁾

그것은 반상의 차별, 남녀의 차별, 지역의 차별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에 대한 증산 나름대로의 해석이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조선은 서양세력의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침략과 위협하에 있었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증산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冤)의 역사를 요(堯)의 아들인 단주(丹朱)로부터 설명하였다.⁶⁹⁾ 강증산이 원의 시원을 요의 아들인 단주에게서 찾는 것은 매우 이채로운 일이다. 그는 단주의 원이 순(舜)에게 미치고, 다시 수 천년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원의 종자가 대대로 퍼져, 그 원이 천지에 가득하여 인간이 파멸의 지경에 이르

67) 『典經』, 98쪽.

68)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합덕론」, 『대순사상논총』, 제2집, 대진대대순사상학술원, 1997, 521쪽.

69) 『典經』, 130쪽.

렀다고 한다. 따라서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의해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해원공사(解冤公事)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증산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 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⁷⁰⁾고 하였다. 당시 반상의 척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해원의 세대가 도래했음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금은 신명(神明) 해원(解冤)의 시대라 하고,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할까. 최제우는 경신(庚申)에 득도(得道)하여 시천주(侍天主)를 얻었는 바 기유(己酉)까지 5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⁷¹⁾ 또 지금은 해원시대니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른다 하였다.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해야 척이 풀려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 하였다.⁷²⁾ 또 이제는 해원시대라 하고,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乾坤)의 위치를 바로 잡아 예법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박공우에게 말하였다.⁷³⁾

이와 같이 강증산은 ‘해원의 시대’를 선언하고, 반상의 해원, 남녀의 해원을 말하고, 동학혁명에 희생된 전봉준(全奉準)과 동학을 부르짖다 희생된 최제우(崔濟愚)의 해원을 언급하였다. 대순에서 원을 푼다는 말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래서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德)이 되어서 복(福)을 이루게 되나니라”⁷⁴⁾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원상생은 척을 짓지 않는 것이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⁷⁵⁾

그런데 강증산은 상호 대립갈등의 원인을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70) 『典經』, 107쪽.

71) 『典經』, 163쪽.

72) 『典經』, 222쪽.

73) 『典經』, 109~110쪽.

74) 『典經』, 231쪽.

75)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회논문집』,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32쪽.

못해 그렇다고 설명한다. 즉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복 투쟁한다 하고, 이를 없애려면 해월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해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開闢)되고 선경(仙境)이 세워진다고 하였다.⁷⁶⁾

여기에서 지기가 통일되지 못했다 함은 음양의 부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 자연, 인간 모두가 음양이 합덕하지 못해 사상과 주장이 엇갈리고, 이해와 득실이 갈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월으로써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천지의 개벽과 도통선경(道通仙境)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대순의 해월은 곧 너와 나, 주객, 피차의 대립을 넘어선 큰 사랑의 길로써, 불교의 대자대비(大慈大悲)요 유교의 인(仁)이요 기독교의 박애(博愛)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대순사상은 이 해월을 통해 개인과 개인의 화해, 집단과 집단의 평화, 나라와 나라의 친선, 민족과 민족의 우애를 통해 선경(仙境)의 이상세계를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월은 상생의 도요 호생(好生)의 덕으로 화민정세(化民靖世)의 길이기도 하다. 증산은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웅패(雄霸)의 술(術)이라.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好生)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창생(億兆蒼生)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⁷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해월의 길은 너도 살고 나도 살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생의 길이 되고 평화의 길이 된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해월의 본래적인 정신이다. 그것이 호생의 덕이고 대인의 길이기도 하다. 이런 관

76) 『典經』, 130~131쪽.

77) 『典經』, 160쪽.

점에서 대순사상은 교육의 본의도 신인의 해원에 있다고 말한다. 즉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文明化)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公利)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관 밖에서 성도(成道)하게 되었느니라”하였다.⁷⁸⁾

대순에서의 해원, 보은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해원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신, 인간, 자연 모두를 망라한 해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순의 해원사상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을 넘나드는 대 사랑의 정신이며, 천하 만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運路)를 열어,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는데 대순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⁹⁾

이러한 대순의 해원사상, 보은사상은 유교의 인(仁)을 방불(髣髴)한다. 유교는 궁극적으로 인을 개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즉 ‘인피천하(仁被天下)’가 유교의 이상이다. 이를 유교에서는 충서(忠恕)라고도 한다.⁸⁰⁾ 충(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을 실현하는 것이고, 서(恕)는 남, 타인을 향해 인을 실현하는 것이다.⁸¹⁾ 인(仁)은 유교의 진리적 언표로서 성(性), 도(道), 심(心) 등과 상통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⁸²⁾ 즉 인간과 자연,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된다. 인(仁)은 내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해주고,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으면 남도 도달케 해주는 것이다.⁸³⁾

78) 『典經』, 160쪽.

79) 『典經』, 312쪽.

80) 『論語』, 「里仁篇」, “子曰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81) 『論語』, 「里仁篇」, 朱子註,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82) 『論語』, 「顏淵」, “樊遲問仁 子曰愛人.”

83) 『論語』, 「雍也篇」,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또 인(仁)은 곧 충서(忠恕)인데, 나에게 베풀어서 원치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⁸⁴⁾ 그리고 이는 내 마음을 헤아려 남을 헤아리는 동정의 도리인 ‘혈구지도(絜矩之道)’와도 같다.⁸⁵⁾

맹자는 “군자는 동물이 산 것을 보고서 그 죽는 것을 차마볼 수 없고, 그 죽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한다”고 하였다.⁸⁶⁾ 맹자는 인인(仁人)이 어찌 백성을 그물질 하는 ‘망민(罔民)’을 차마 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⁸⁷⁾ 한 불의(不義)를 행하고 한 무고(無辜)한 사람을 죽이고서 천하를 얻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⁸⁾

이러한 유교의 인(仁)은 넓은 의미에서 대순의 해원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순의 해원도 결국은 타인의 억울함, 원한, 원, 척을 풀어 주어 서로가 화해하고 상생하는데 그 본의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의 원인, 정도, 가해자의 반성과 상관없이, 해원을 통해 대화해(大和諧), 큰 사랑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대순의 종지는 역시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된다. 예컨대 공자는 원(怨)에 대해 덕(德)으로써 갚는 것을 반대하고, 직(直)으로써 원(怨)을 갚고 덕(德)으로써 덕(德)을 갚으라 하는 것이니,⁸⁹⁾ 이런 점에서 대순과 유교의 사랑의 논리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도통진경(道通眞境)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적, 이상적 지향점은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있는데,⁹⁰⁾ 이는 달리 말하면 도통선경(道通仙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84) 『中庸』, 제13장, “忠恕 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顯 亦勿施於人.”

85) 『大學』, 傳10章.

86) 『孟子』, 「梁惠王 上」,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87) 『孟子』, 「梁惠王 上」.

88) 『孟子』, 「公孫丑 上」, “行一不義 殺一不辜而得天下 皆不爲也.”

89) 『論語』, 「憲問篇」, “或曰 以德報怨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90) ‘道通眞境’의 宗旨는 道主 趙鼎山이 ‘無極道’를 창도할 때 나온 개념인데, 그 근거는 역시 姜飢山の 天地公事에 연원한다.(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

도통진경이란 도(道)를 통한 참된 경지요,⁹¹⁾ 진리로서의 도가 온 천하에 두루 통해서, 인간이 바라는 참되고 진실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⁹²⁾

이는 유교의 대동(大同)세계와 비슷하다.⁹³⁾ 대동세계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상으로, 천하 모든 것들이 공공(公共)의 것이 된다. 즉 네 것 내 것이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현자(賢者)와 전문적 자질이 있는 능력있는 자들을 뽑아 신의(信義)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홀로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남의 부모까지도 공경하며, 자기 자식만을 홀로 자식으로 여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도 사랑한다. 노인들은 여생을 마칠 곳이 보장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각기 쓸모가 있어 저마다 일터에서 일을 하며, 어린이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양육되어진다. 또한 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 노인, 심신장애자 등 모든 사회적 불우계층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생계를 보장 받는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직분이 있고 여자들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해 가정을 갖는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로 감추지 않는다. 능력이 자기 몸에서 다 발휘되지 아니함을 미워하지만 그 능력을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즉 돈이 많다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으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와 능력을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는 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음모를 하는 일이 없고, 도둑이나 강도들이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살고 높은 담장 없이 사니, 이런 세상을 대동(大同)이라 한다고 하였

리학술논총』, 제1집, 36쪽.)

91) 최동희, 「도를 통한 참된 경지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92) 정대진, 「도통진경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8쪽.

93) 이항녕, 「도통진경 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제5집, 31~33쪽.

다.⁹⁴⁾ 이처럼 유교의 대동세계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의 평등한 세상
이요, 절대 사랑의 세계다.⁹⁵⁾

그러면 대순에서 말하는 도통(道通)이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먼저
대순에서의 도(道)란 무엇인가 검토해 보기로 하자. 『대순지침』에 의
하면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經緯)며,
경위가 법(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⁹⁶⁾고 한다. 여기에서 도,
음양, 리(理), 경위, 법은 하나로 상통된다. 또 “우주대원(宇宙大元)의
진리가 도(道)이며, 도는 사람만이 깨달아 닦을 수 있으므로, 도인(道
人)으로써 본분에 알맞는 참된 말과 참된 행위를 준행(遵行)해야 한
다”⁹⁷⁾ 하고, “도는 우주만상의 시원이며 생성변화의 법칙이고, 덕(德)
은 곧 인성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
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⁹⁸⁾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 때, 대순에서의 도(道)는 우주대원의 진리, 우주만상의
시원, 생성변화의 법칙으로 설명된다.⁹⁹⁾ 이 도는 우주와 인간을 통섭
(統攝)하는 근원적 진리이며, 만사만물의 생성변화의 법칙이며, 인간이
지켜가야 할 도리로서의 도가 된다. 이런 논리로 보면 대순에서의 인
도와 천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천도가 곧 인도요, 인도는 천도에 근
거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드러나고 신인합일(神
人合一)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도통(道通)이란 다름 아닌 우주자
연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로 소통되는 경지를 말한

94) 『禮記』, 「禮運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鰥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95)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 예문서원, 2002, 31쪽.

96) 『대순지침』, 18쪽.

97) 『대순지침』, 23쪽.

98) 『대순지침』, 44쪽.

99) 박용철은 道를 길로서의 道, 순환과정으로서의 道, 法으로서의 道, 본체·본원으로
서의 道, 無로서의 道, 理로서의 道, 心으로서의 道, 인간 당위법칙으로서의 道, 玄
妙한 의미로서의 道로 정의하고 있다. (『도통진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
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352~360쪽 참조)

다. 대순경전에 의하면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¹⁰⁰⁾ 또 “내가 도통 줄을 대두목(大頭目)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儒佛仙)의 도통신(道通神)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¹⁰¹⁾ 라고 상제께서 말했다 한다. 따라서 상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입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되었을 때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리라 하였다.¹⁰²⁾

여기에서 도통에의 길은 수도(修道)로 연결된다. 즉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깨끗이 닦아 진실하고 정직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언행과 처사가 일치하여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에 이르렀을 때, 도통의 경지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도통진경이라는 것이다.

대순의 도통은 유교에서의 수신(修身)의 경지로서 마치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으로 이루어진 명명덕의 경지다.¹⁰³⁾ 이는 달리 말하면,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을 말하고 지행(知行)을 말한다. 몸과 마음, 심신이 바르게 되고 지행이 일치된 경지를 말한다.

대순에서의 도통진경은 수도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순의 경전에 의하면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다¹⁰⁴⁾고 하였다. 대순에서의 수도는 도통

100) 『대순지침』, 38쪽.

101) 『典經』, 172쪽.

102) 『대순지침』, 39쪽.

103) 『大學』에서는 修己의 조목을 格物, 致知, 誠意, 正心으로 제시하고 있다.

104) 『대순지침』, 37쪽.

이 목적이고, 도통의 방법이 곧 수도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수도를 위해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고, 마음과 몸의 건강과 평안을 도모한다. 대순사상은 인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기적 측면에서 마음을 강조한다. 심(心)은 귀신의 추기(樞機)요 문호(門戶)요 도로(道路)라 하고,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나아가고 들어오고 도로를 왕래하는 것이 신(神)이어서, 혹은 선이 있고 혹은 악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야 하는데, 오심(吾心)의 추기, 문호, 도로가 천지보다 크다고 하였다.¹⁰⁵⁾ 또 천용(天用), 지용(地用), 인용(人用)이 통틀어 마음에 있다¹⁰⁶⁾고 하여, 천용, 지용, 인용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우리 마음은 귀신의 통로로 증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자연, 인간만사가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한다 하고, 마음이 몸의 주(主)로써 모든 병과 악을 낚아 들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의 발로에 사심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행하는 것이 안심(安心)이라고 하였다.¹⁰⁷⁾ 이러한 관점에서 『전경』에서는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하고, 여동빈도 “몸의 병에는 악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하였고, 옛 사람들도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고 하였으니, 마음이 내 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⁸⁾

또 “인간의 복록(福祿)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 주리라.”¹⁰⁹⁾하였고, 또 “진심(眞心)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고 하였다.¹¹⁰⁾ 이처럼 현세적 복이나 경제적 이로움도

105) 『典經』, 48쪽.

106) 『典經』, 48쪽.

107) 『대순지침』, 48쪽.

108) 『대순지침』, 49쪽.

109) 『典經』, 234쪽.

결국 일심을 가진 자, 참된 마음의 소유자에게 돌아온다고 보았다.

또한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¹¹¹⁾고 하여, 범사의 성공도 한 마음을 가진 만이 할 수 있다 하였다.

그렇지만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렵다”¹¹²⁾ 하고,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한다”¹¹³⁾고 하였다. 여기에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운 과제임을 말하고, 마음을 참되고 정직하게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인간 내면의 진실성 확보, 정직한 심체(心體)의 확립이 수도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강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린다 하고, 이제 먼저 난법(亂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眞法)을 내리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곡(私曲)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 하고, 이제 신명(神明)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해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私情)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하였다.¹¹⁴⁾

그런데 대순사상은 인간의 마음과 몸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유기적이라고 보아, 마음과 함께 몸도 건강하고 편안해야 한다고 본다. 심안신태(心安身泰)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라 하고,¹¹⁵⁾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 되도록 해야 한다

110) 『典經』, 234쪽.

111) 『典經』, 234~235쪽.

112) 『典經』, 235쪽.

113) 『典經』, 235쪽.

114) 『典經』, 255쪽.

115) 『대순지침』, 49쪽.

고 하였다. 그래서 대순진리를 심수덕행(心修德行)하고 정심입의(正心立義)하여 문달(聞達)을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하며, 명덕(明德)을 수행하고 재덕(才德)을 계발하여 지선(至善)에 이르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¹¹⁶⁾고 하였다. 또 큰 병의 약은 안심(安心) 안신(安身)이라 하였으니 깊이 명심해야 한다¹¹⁷⁾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순의 안심안신(安心安身), 심안신태(心安身泰)가 수도의 원칙으로 제시된다. 이는 심신의 건강과 평안을 말하는 것으로, 심신을 유기적으로 본데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대순사상은 심수덕행(心修德行)을 말하는데, 심덕(心德)의 수행은 곧 몸과 마음의 수양을 의미하는 말이다.

유교도 개인의 수기를 만사의 근본으로 삼는다. 즉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수신으로 근본을 삼는다.¹¹⁸⁾ 이는 대순에서 수도를 강령으로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유교는 수기를 위해 마음공부를 매우 중시한다. 공자는 마음이란 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어져, 드나들이 때가 없이 그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¹¹⁹⁾ 또 맹자는 학문의 도리란 다름 아닌 행방불명된 마음을 도로 찾는 ‘구방심(求放心)’이라고 하였다.¹²⁰⁾ 우리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데 마음은 가변적이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수기의 핵심이다. 대순사상이 수도에 있어 마음을 중시했듯이, 유교의 경우도 마음공부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입심(立心), 조심(操心), 정심(正心), 실심(實心), 부동심(不動心), 존심(存心), 양심(養心) 등 다양한 마음공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순경전에서는 “포덕(布德), 교화(教化), 수도(修道) 및 모든 것이 성(誠)·경(敬)·신(信)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

116) 『대순지침』, 45~46쪽.

117) 『대순지침』, 48쪽.

118) 『大學』, 經1章, “自天子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119) 『孟子』, 「告子 上」,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120) 『孟子』, 「告子 上」.

달아야 한다”하고, “성(誠)·경(敬)·신(信)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生死判斷)도 결정되는 것이다”¹²¹⁾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인들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인사가 상제가 대순한 진리대로 이룩되어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해야 한다¹²²⁾고 하였다.

또한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다 하고,¹²³⁾ 성현으로 추존(推尊) 받는 옛사람은 성(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라 하였다.¹²⁴⁾ 이는 성경신이 대순사상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수도의 요체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순에서의 성(誠)의 의미는 진실로서의 성, 진실된 행위를 담은 정성의 성,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이 바탕이 된 일심으로 요약된다.¹²⁵⁾

이와 같이 대순에서 강조하는 3대 요체로서의 성경신(誠敬信)은 유교적 범새가 짙게 풍긴다. 성경신은 모두가 유교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윤리개념이다.¹²⁶⁾ 특히 『중용』의 경우는 성(誠)과 중(中)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신(信)도 『논어』, 『맹자』등 유가 경전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더욱이 송대성리학에 와서는 성(誠)과 경(敬)은 유교윤리의 중핵으로 강조되어 왔다. 조선조에 와서도 퇴계, 율곡 등 선유들에 의해 성과 경은 매우 중요한 윤리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대순에서의 성경신에 대한 이해가 유교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용어의 차용은 유교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²⁷⁾

그러면 대순에서의 성경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

121) 『대순지침』, 54쪽.

122) 『대순지침』, 32쪽.

123) 『대순지침』, 38쪽.

124) 『대순지침』, 41쪽.

125) 이경원, 『誠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9집, 대전대 대순사상학술원, 2000, 247쪽.

126) 성리학에서 誠과 敬은 윤리적 의미만이 아니라 본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27) 崔濟愚도 東學에서 誠·敬·信을 매우 중시해 사용하고 있다.

해 보기로 하자. 대순에서는 “성(誠)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敬)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대순에서는 성(誠)을 스스로 속임이 없는 ‘무자기(無自欺)’로 해석한다. 즉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서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하여 무자기(無自欺)를 뜻한다 한다.¹²⁸⁾ 또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신이 살피시니라”하였으니, 도인들은 이를 명심하여 암실에서도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¹²⁹⁾ 또한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예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다.¹³⁰⁾

이와 같이 성(誠)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¹³¹⁾ 성(誠)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 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성(誠)으로 바르게 도 닦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¹³²⁾ 그리고 성은 사람의 정(精)·기(氣)·신(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라 하여,¹³³⁾ 성을 인간의 정기(精氣)요 정신(精神)이라고 보았다.

대순에서의 이러한 성(誠)에 대한 이해는 유교적 이해와 다르지 않다. 주자는 ‘성(誠)을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³⁴⁾ 율곡은 주자의 해석을 따라 성(誠)을 실(實)로 보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은 천도요, 진실하여 거짓이 없고자 하는 것은 인도라 하였다.¹³⁵⁾ 이처럼 유교에서도 성은 진실, 참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용』

128) 『대순지침』, 24쪽.

129) 『대순지침』, 28쪽.

130) 『대순지침』, 42쪽.

131) 『대순지침』, 51쪽.

132) 『대순지침』, 41쪽.

133) 『대순지침』, 51쪽.

134) 『中庸』, 제21장, 朱子註, “誠者 眞實無妄之謂...”

135) 『栗谷全書』, 拾遺, 卷6, 「四子言誠疑」, “眞實無妄者 天道也 欲其眞實無妄者 人道也.”

은 성을 강조하여 성(誠)은 사물의 끝과 시작으로, 성이 아니면 물(物)도 없다고 한다.¹³⁶⁾ 이처럼 유가경전에서의 성은 송대 성리학에 와서 실(實)로 구체화되어 진실(眞實), 실천(實踐), 실용(實用)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참으로서의 진실이 성(誠)의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순에서 성(誠)을 불기심(不欺心)으로 보는 것처럼, 유교에서도 성의(誠意)를 무자기(毋自欺)로 보아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慎獨)고 하는 것이다.¹³⁷⁾

다음은 대순에서의 경(敬)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경은 위에서 말한 대로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지성으로 봉축(奉祝)함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는 것을 경(敬)이라 하고, 경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處身處世)하는 것이라 하였다.¹³⁸⁾ 이러한 대순에서의 경의 의미는 공경(恭敬), 공순(恭順)의 의미가 매우 짙다. 성(誠)을 다하는 지성(至誠)이 곧 경(敬)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도 경(敬)을 매우 중시하여 강조한다. 『논어』에서는 ‘집사경(執事敬)’,¹³⁹⁾ ‘행독경(行篤敬)’,¹⁴⁰⁾ ‘수기이경(修己以敬)’,¹⁴¹⁾을 말하고, 『주역』에서는 ‘경이직내(敬以直內) 의이방외(義以方外)’,¹⁴²⁾를 말한다. 경은 송대성리학에 와서 수양론의 중핵으로 강조되어진다. 송대 정이천(程伊川)은 경(敬)을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해석하였고,¹⁴³⁾ 퇴계는 경을 일심의 주재요 만사의 근본이라 하였다.¹⁴⁴⁾ 그리고 심(心)은 일신의 주재인데, 경(敬)은 또한 일심(一心)의 주재가 된다 하였다.¹⁴⁵⁾ 따라서 경(敬) 한 글자는 성학(聖學)의 시작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것으로

136) 『中庸』, 제25장, “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

137) 『大學』, 傳7章,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故君子必慎其獨也.”

138) 『대순지침』, 52쪽.

139) 『論語』, 「子路篇」.

140) 『論語』, 「衛靈公篇」.

141) 『論語』, 「憲問篇」.

142) 『周易』, 「坤卦 象傳」.

143) 『二程全書』, 卷15, 「伊川語錄」, “敬者 主一之謂 敬所謂一者 無適之謂.”

144) 『退溪全書』, 「大學圖說」, “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145) 『退溪全書』, 「心學圖說」, “心者 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宰.”

중시되었다.¹⁴⁶⁾ 이와 같이 성리학에서 경은 한 마음의 주체이며 만사의 근본으로, 하나의 수양원리일 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주체로 규정되었다. 또 경(敬)은 리(理)를 체득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 수양의 첩경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리학에서의 경의 의미에 비하면 대순에서의 경의 의미는 주로 실천적 측면, 인간의 대인(對人), 대사(對事), 대신(對神) 관계에서의 정성스러움,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⁴⁷⁾

끝으로 신(信)은 ‘의심을 품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 즉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을 말한다. 신은 성경(誠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진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도 굳건해 진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순에서의 신(信)은 종교적 신념, 신앙적 믿음의 성격이 매우 짙다.

유교에서도 신(信)은 중요한 덕목의 하나였다. 일찍이 신(信)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의 하나로서, 선진경전에서 다양하게 강조되었다. 『논어』에서는 ‘주충신(主忠信)’¹⁴⁸⁾, 사교(四教)로서의 ‘문행충신(文行忠信)’¹⁴⁹⁾을 말하였고, 자공(子貢)이 정치를 물었을 때 족식(足食), 족병(足兵)에 ‘민신지(民信之)’를 말하고,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하였다.¹⁵⁰⁾ 또 『주역』에서는 충신(忠信)은 덕에 나아가는 길이라 하고,¹⁵¹⁾ 『맹자』에서는 오륜(五倫)의 하나로서 ‘붕우유신(朋友有信)’을 일컫기도 하였다.¹⁵²⁾

이렇게 볼 때, 믿음이라는 신(信)은 충(忠)과 함께 충신(忠信)으로, 또 의(義)와 함께 신의(信義)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신(信)이 진실, 참

146) 『退溪全書』, 「小學圖」, “吾聞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147) 정대진은 敬을 主一無適하는 정신, 모든 禮의 근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대순진리회의 신조』, 『대순진리학회논문집』, 제2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8, 26쪽)

148) 『論語』, 「學而篇」.

149) 『論語』, 「述而篇」.

150) 『論語』, 「顏淵篇」. “子貢問政 子曰足食足兵 民信之.....民無信不立.”

151) 『周易』, 「乾卦 九三爻」, “忠信 所以進德也....”

152) 『孟子』, 「滕文公 上」.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진실하여 거짓이 없을 때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信)은 충(忠), 성(誠), 의(義)와 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순에서의 신(信)이나 유교에서의 신의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대순경전에서 신을 ‘의심을 품지 않는 믿음’이라 설명하고 있듯이, 종교적, 신앙적 측면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도통진경(道通眞境)의 길은 인간 개인의 안심안태(安心安身), 심안신태(心安身泰)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을 넘어 사회, 국가, 천하로 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대순에서는 광제창생(廣濟蒼生), 광구천하(匡救天下), 포덕천하(布德天下), 화민정세(化民靖世), 평천하(平天下) 등 다양하게 설명한다. 이에 대한 대순경전의 언급을 보기로 하자. 증산은 말하기를 “내가 평천하(平天下)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治天下)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 명씩 포덕(布德)하라”¹⁵³⁾ 하였고, “사람마다 도략(韜略)이 부족하므로 천하를 도모치 못하노니, 만일 웅재대략(雄才大略)이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으랴. 나는 실로 천하를 도모하여 창생(蒼生)을 건지려 하노라”¹⁵⁴⁾ 하였다. 또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하여 조화롭게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들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¹⁵⁵⁾ 하였다.

이와 같이 대순이 지향하는 이상세계는 인간 각자가 심신이 건전하여 도인이 되고, 우주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알아 실천하여 도통에 이르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평화로운 지상천국, 지상낙원을 회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대순이 개인의 수도를 뛰어 넘어 사회적, 정치적, 지상천국,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것은 유교의 정신과 상통한다. 즉 유교는 개인적

153) 『典經』, 41쪽.

154) 『典經』, 53쪽.

155) 『典經』, 314쪽.

수기를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인(仁)의 실현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논리다. 이러한 정신은 유가경전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학』에서는 명명덕(明明德)과 신민(新民: 親民)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수기로서의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을 말하고, 사회적 실현으로의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일컫게 된다. 또 『중용』에서는 성기(成己)와 성물(成物)을 말하고, 『논어』에서는 수기(修己)와 안민(安民: 安百姓, 治人)을 말하고, 『맹자』에서는 정기(正己)와 물정(物正)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교는 내면적으로는 성인과 같은 인격을 함양하고(內聖), 밖으로는 왕도를 실현해야(外王) 하는 것이다.¹⁵⁶⁾ 이렇게 볼 때, 유교는 결국 수기치인지도(修己治人之道)요 내성외왕지도(內聖外王之道)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순의 광제창생(廣濟蒼生), 광구천하(匡救天下), 포덕천하(布德天下), 평천하(平天下)는 유교의 정신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강증산은 광제창생을 위해 개벽(開闢)을 말하고, 삼계공사(三界公事)를 주창한다. 그는 시속(時俗)에서 말하는 개벽장(開闢長)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神明)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한다¹⁵⁷⁾ 하고, 개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는 개벽해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仙運)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하였다.¹⁵⁸⁾ 또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

156) 황의동, 『울곡학의 선구와 후에』, 예문서원, 1999, 48~49쪽.

157) 『典經』, 97쪽.

158) 『典經』, 98쪽.

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하였다.¹⁵⁹⁾

그는 자신이 개혁의 주체라 하고,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仙運)을 열어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의 신명(神明)도 고치겠다고 말한다. 그 일환으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겠다고 하여, 그의 개혁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삼계가 개혁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人間之事)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해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다고 보았다.¹⁶⁰⁾ 이렇게 볼 때, 그가 말하는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혁함ियो,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¹⁶¹⁾ 이렇게 볼 때, 강증산이 말하는 삼계공사는 곧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말하는데,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 일’을 말한다.¹⁶²⁾

대순에서의 개혁정신은 유교에서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개혁이란 증산이 말하듯이,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인간의 심성도 뜯어 고친다는 전면적인 개혁, 변화를 의미한다. 유교에서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경전이나 유학

159) 『典經』, 245쪽.

160) 『典經』, 312쪽.

161) 『典經』, 312쪽.

162)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17쪽.

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공자, 맹자도 당시 현실에서는 개혁주의자였다. 그들은 당시 춘추전국시대의 말패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현실개혁의 뜻을 품고 중국 천하를 주유(周遊)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5세기 사화시대에 도학(道學)에 의한 지치(至治)혁명을 주도했던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나 16세기 조선조의 개혁을 주장했던 율곡(栗谷) 이이(李珥) 그리고 17, 8세기 국가적 위기에서 조선조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등 실학자들에게서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대순에서의 개혁사상은 종교적 차원에서 천지도수의 개혁을 외치고, 인간 심성의 변화도 종교적 신명을 통한 개혁을 말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또한 대순에서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길로 포덕(布德)이 제시된다. 포덕은 인도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이다.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智慧)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報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¹⁶³⁾ 해원상생 대도의 참 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廣濟蒼生)이 되는 것이다.¹⁶⁴⁾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선경(仙境)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 주는 일을 대순에서는 포덕(布德)이라 하였다.¹⁶⁵⁾

이렇게 볼 때, 대순에서의 포덕(布德)은 ‘덕(德)을 널리 편다’,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이룩한다’, ‘해원상생(解冤相生) 대도(大道)의 참 뜻을 전파한다’, ‘장차 도통선경(道通仙境)의 세계에 동참하는 길을 알려 준다’는 등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포덕은 한편 개인적인 수도를 통해 훌륭한 도덕인으로써 남에게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다

163) 『대순지침』, 19쪽.

164) 『대순지침』, 21쪽.

165) 『대순지침』, 44쪽.

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차원에서 대순의 진리를 전파하고 광제창생, 포덕천하, 도통선경의 길에 동참할 것을 널리 홍보한다는 종교적 의미로 해석된다.

IV. 현대사회와 대순사상의 의의

현대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약속해 준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발전을 촉진해 물질적 풍요를 가능케 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경제적 가치가 우위를 점해,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력 질주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좁아졌고, 언어, 종교, 사상, 문화, 경제가 국경 없이 개방되어 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는 일면 물질적 풍요와 편리 그리고 세속적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소외, 윤리적 위기, 전통문화의 위기,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족종교의 하나인 대순사상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 해결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종교의 고리나 종지는 이 시대에 각기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다종교문화, 다종교사회를 전제할 때 각기 종교의 특성과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순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순에서의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종지는 이 시대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음과 양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¹⁶⁶⁾ 이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 공존한다. 보수와 진보,

166) 양무목, 「음양합덕의 현대적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제2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8, 41쪽.

이상과 현실, 물질과 정신, 윤리와 경제가 서로 각을 세우고 있지만, 적대가 아니라 서로 상대를 통해 보구(補救)를 받는 상보적인 관계다. 나와 마주 서 있는 너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요청한다. 이 만남이 조화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상생의 길이다.

둘째, 대순에서의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종지, 특히 인존(人尊)시대의 선언은 현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신성(神性)과 물성(物性)이 하나가 된 존재다. 한편으로는 양심, 지성을 지닌 거룩한 신의 자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에 갇혀 물질, 욕심, 감성을 가진 동물적 존재이기도 하다. 여기에 신에 근거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필요하다. 강증산은 인존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이는 신을 말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신, 물질을 말하더라도 인간을 위한 물질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오늘날 현대인은 신에 의해 인간이 경시되고 있고, 또 물질,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이 조종되고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인간소외요 인간의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순의 인존사상은 그 의미가 크다. 이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다.¹⁶⁷⁾ 인간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

셋째, 대순에서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일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부분적인 평화요 부분적인 안정이다. 종교적 분쟁, 인종분쟁, 정치적 갈등, 문화적 충돌, 세대 간 반목, 남녀 간 갈등, 계층 간의 대립 등 수많은 갈등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대순의 해원상생은 피차의 억울함, 원한, 증오, 척(慝), 원(冤)을 풀어 서로가 웃고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큰 사랑의 정신으로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이요, 불교의 대자대비(大慈大悲)요, 유교의 인(仁)이요, 기독교의 박애(博愛)라고 할 수 있다. 대

167) 양무목, 「대순사상의 형성과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89쪽 참조.

순의 해원상생을 통해 대화해(大和諧), 큰 사랑이 충만한 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순에서의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을 통해 가야 할 이상향이다. 개인적으로는 저마다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인(道人)이 되고,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광제창생(廣濟蒼生), 광구천하(匡救天下)의 길이다. 이를 위해 천지의 개혁, 인간의 개혁이 요구된다. 개혁은 변화요, 개혁이요, 새로워짐이다.

대순의 이러한 종지가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실천’이 중요하다. 말은 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대순의 진리, 강증산의 구세(救世)이념이 이 시대에 실현되기 위한 대순종단의 모범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周易』, 『禮記』, 『書經』, 『大學』, 『中庸』, 『孟子』, 『論語』, 『荀子』,
『二程全書』, 『性理大全』, 『退溪全書』, 『栗谷全書』, 『與猶堂全書』.
- 『典經』,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1984.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교무부, 2003.
- 정대진, 「대순진리회의 신조」, 『대순진리학술논총』, 제2집, 대진대 대
진학술원, 2008.
-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7.
- 정대진, 「도통진경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대 대순사상
학술원, 1998.
- 이경원, 「대순종지의 사상적 구조와 음양합덕론」, 『대순사상논총』, 제
2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 이경원, 「誠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9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2000.
- 양무목, 「음양합덕의 현대적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제2집, 대진
대 대진학술원, 2008.
- 양무목, 「대순사상의 형성과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
대 대진학술원, 2007.
- 유승국, 「동아시아 기조로서의 도와 현대사회」, 『대순진리학술논총』,
제3집, 대진대 대진학술원, 2008.
- 최동희, 「도를 통한 참된 경지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이항녕, 「도통진경 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
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박용철, 「도통진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김충렬, 『유가의 윤리』, 배영사, 1983.

김충렬, 『동양사상산고』, 범학, 1979.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 예문서원, 2002.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황의동, 『율곡 이이』, 살림, 2007.

▪Abstract▪

Confucius Understanding on Deason Ideas

Eui-Dong Hwa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ason ideas are doctrine of Deasonjinrihoe, which was founded by Ilsoon Gang, religious thinker in the late of Josun Dynast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influences of Confucius ideas implicit in Deason ideas and finding out their meaning in the modern society. Ilsoon Gang considered Confucianism very important when he forms his Deason ideas and after all, he included Confucius ideas to Deason ideas to develop his own religious theory.

The meanings of Deason ideas in the modern world are as follows: First, Deason's harmonious ideas on yin and yang can be a healing method to solv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f the modern society.

Second, Deason's harmony between God and humans and ideas on human dignity is helpful to solve human isolation that the modern society faces.

Third, Deason's ideas that human's hostility and grudge must be healed teaches loves and co-existence to humans.

Fourth, Dotongjinkyong, which is Deason's ideal world, is

the world where communica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whole, God and humans, a human and a human, and humans and the nature perfectly are harmonized.

Key words : Daesoon, Harmony of Yin and Yang, Harmony of God and Humans, Heowansangseong, Dotongjinkeong, Gwangjechangsang

◎ 투 고 일 : 2009년 6월 22일

◎ 심 사 기 간 : 2009년 7월 22일~7월 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09년 8월 8일